

# “올지”...김기태 KIA감독 한승택 스윙에 폭풍 칭찬

“타석 들어설 때 팬들 기대감 가질 수 있게끔 준비”



“올지~ 그렇지!”  
지난 3일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셋백조’가 엑스트라 훈련을 위해 구장에 남았다. 그때 김기태 감독의 눈에 든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포수 한승택(24)이었다.  
김기태 감독은 한승택 옆에서 있었다 일어섰다며 반복하며 그의

스윙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한승택은 임팩트시 손목을 활용한 간결한 스윙을 반복했고, 김 감독은 그때마다 “올지”, “그렇지”를 외치며 기를 북돋아줬다. KIA 구단 관계자는 “감독님께서 저렇게 화색을 보이는 건 흔치 않다”고 귀띔했다.  
김 감독은 한승택의 스윙에 대

해 “손목 쓰는 것이 많이 좋아졌다. 짧게 휘 돌린다. 손목과 밸런스를 반동을 이용한 스윙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과 KIA 타격코칭 파트는 임팩트 순간 손목을 사용, 간결한 스윙으로 타구 회전력 높이기 중점을 둔다. 멀리 치는 것보다 힘 있는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만드는 게 목표다.

셋백조 선수 중 가장 늦게 훈련을 마친 한승택은 “감독님께서 스윙시 손목을 많이 쓰라고 하신다. 배팅을 할 때 그 스윙이 나온다고 칭찬하신 것이다. 감독님께서 타격에 관해 이렇게 칭찬을 받은 건 처음이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2013년 입단한 뒤 1군에서 3시즌을 뛴 한승택은 147경기 통산 타율이 1할7푼4리에 불과하다. 통산 안타 25개 중 홈런이 없다. 장타도 3개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96경기 타율 2할2푼9리. 인접된 수비에 비해 타격이 아쉬운 선수로 평가됐다. 주전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방망이를 끌어올리는 게 필수 과제다.

한승택은 “겨울 동안 개인 훈련을 하며 힘을 기르는 데 집중했다. 이전에는 타격시 타이밍이 늦었지만, 올해는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가져가서 힘을 실는 연습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방망이가 너무 약했다. 올해는 타석에 들어설 때 팬들께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포수로서 수비는 기본. 한승택의 가장 큰 경쟁력도 수비에서 나온다. 그는 “수비도 더 안정감을 있게 하고 싶다. 아직 실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도 신경 쓰고 있다”며 “주전 욕심보다는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겠다.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웨이트도 많이 한다. 준비를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팀에 도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 1~114, 숫자로 보는 동계올림픽...몇개 추렸더니



북쪽에 세계 정상에 오른 이 선수의 동계올림픽 메달은 13개나 된다. 각각 취재진에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정보를 제공하는 ‘미인인포 2018’은 개막을 이틀 앞둔 6일, 숫자와 관련된 올림픽 역사를 소개했다.

◇숫자로 보는 올림픽

114= 한 국가가 같은 종목에서 딴 최대 메달 수. 오스트리아가 알파인 스키에서 114개의 메달을 가져갔다.

102= 평창대회 세부 종목 숫자

40= 바이애슬론 올레 아이나르 보른달렌(노르웨이)은 2014년 소치 대회에서 만 40세12일로 남자 바이애슬론 10km 스피린트 금메달을 따 최고령 동계올림픽 우승자가 됐다.

25= 피겨스케이팅은 그동안 22번의 동계올림픽과 2번(1908·1920)의 하계올림픽에서 진행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이 25번째다.

23= 이번 대회는 23번째 동계올림픽이다.

14= 미국은 14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 바이애슬론은 이들이 유일하게 시상대를 정복하지 못한 종

목이다

13= 보르달렌이 갖고 있는 올림픽 메달 수. 금메달 8개(은 4개, 동 1개) 역시 최다 타이 기록

12= 캐나다는 12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가져갔다. 노르딕복합과 루지, 스키점프는 아직 무소식

8= 설상 종목에서 한국이 거둔 최고 순위. 2002년 솔트레이크 대회 스키점프 남자 팀 라지힐 단체전 8위에 올랐다.

6= 은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로 총 6개의 메달을 거머쥔 헝가리. 금메달 없는 국가 중에서는 단연 으뜸이다

5= 미국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의 에릭 하이든(미국)은 1980년 대회에서 5개의 메달을 가져갔다. 처음으로 단일 대회에서 5개 이상의 메달을 딴 선수

4= 한국 쇼트트랙 전이경은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1994년 2개, 1998년 2개

3= 한국은 3개 종목에서만 메달을 따. 쇼트트랙 4개, 스피드스케이팅 9개, 피겨스케이팅 2개

1= 평창 대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첫 훈련이 실시된 6일 오전 강원 강릉영동대학교 빙상장에서 남녀 대표팀이 함께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 쇼트트랙 대표팀, 짧고 굵은 강훈련...“빙질 좋네요”

서이라 “열심히 준비했으니 책임감 갖고 최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나서는 쇼트트랙 대표팀이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열을 올렸다. 쇼트트랙 남녀 대표팀은 6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특유의 다이내믹한 코너워크는 흡사 메달 경쟁을 벌이는 선수들의 모습이었다.

오전 훈련이 가볍게 몸을 푸는 정도였다면, 오후 훈련에서는 본격적으로 스피드를 더했다. 10명의 대표팀 선수들은 실전처럼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고, 코치들은 선수들을 독려했다. 트랙을 수 십 차례 돌기를 반복하면서 선수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트랙을 돌았다. 계주 훈련, 스타트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마지막 비류에서는 사력을 다했다.

선수들은 훈련을 마치고 쉬는 동안 영상을 보면서 잘못된 자세를 고치는 등 짧은 훈련 시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훈련을 마친 서이라(26·화성시청)는 딱딱한 빙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개인적으로 무른 빙질보다 딱딱한 얼음을 선호한다. “빙질에 대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선수가 없었다”며 만족을 표했다.

올림픽에 나서는 각오도 전했다. 서이라는 “올림픽은 모든 운동 선

수들의 꿈이기도 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꿈이기도 하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서이라 등 남자대표팀은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노메달에 그쳤다. 인방에서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김이랑(23·고양시청)은 “연습경기 때 트랙보다 좋았다. 그러나 빙질 선호도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늘 훈련 첫날이라서 적응을 했다. 내일부터 훈련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팀 황대현(19·부흥고)은 훈련 도중 넘어져 훈련을 모두 마치지 못했다.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 “한국, 금메달 8개 딸듯...쇼트트랙에서 7개 예상”

“최민정·황대현 3관왕” AP 각국 메달 예측

2018 동계올림픽을 평창이라는 안방에서 치르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 8개를 획득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AP 통신은 6일(한국시간) 2018 평창 올림픽 메달 예측에서 한국이 금메달 8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동계스포츠 최고 효자종목인 쇼트트랙에서 역대 가장 많은 7개의 금메달을 딴다.

최민정이 여자 500m와 1000m, 황대현은 남자 1000m와 1500m에서 개인 종목 두 개씩의 금메달을 목에 걸 전망이다. 최민정과 최강 듀오를 이루고 있는 심석희는 1500m에서 정상에 오르리라고 봤다. 남자 5000m 계주와 여자 3000m 계주도 안방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최민정과 황대현은 계주 금메달을 더해 대회 3관왕에 오를 것이란 예측이다. 심석희도 2관왕에 등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외에도 최민정이 여자 1500m 은메달, 심석희가 여자 1000m 동메달을 획득한다.

한국 쇼트트랙은 그 동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만 21개를 획득하

는 등 총 4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평창에서도 금빛 질주를 계속할 전망이다.

한국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싸늘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른 종목 유력한 금메달 후보는 남자 스키레톤 윤성빈이다. 윤성빈은 올 시즌 월드컵에서 이 종목 황제라 불리는 마르티스 두쿠르스(라트비아)를 제치고 랭킹 1위에 올랐다. 홈 트랙의 이점까지 더해 금메달을 목표하고 있다.

두쿠르스는 윤성빈에 밀려 은메달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어서 평창에서 윤성빈의 황제 대판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아시아 선수로는 동계올림픽 첫 3연패에 도전하는 이상화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라이벌 고다이라 나오(일본)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됐다.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남자 매스스타트 이송훈도 미국의 라이벌 조이 맨티아에게 금메달을 내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각국의 금메달만 놓고 보면 설상 종목 최강 노르웨이가 19개로 가장 많은 금메달을 수확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이 15개, 캐나다가 14개로 뒤를 이었고 미국이 10개를 가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대표팀 입촌식이 열린 7일 오전 강원도 강릉 올림픽 선수촌 국기광장에서 대표팀 선수와 코칭 스태프 등이 입장하고 있다.

저갈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미국 다음인 8개, 일본이 6개,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5개씩의 금메달을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도핑 파문으로 러시아가 아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자격 선수들은 금메달 4개, 중국이 3개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다.

뉴시스

## IOC, 北선수 귀국시 평창올림픽 선물 핸드폰 반환 요구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삼성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스마트폰을 북한 선수 22명에 대해서는 귀국전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관계자를 인용해 IOC가 북한 선수들이 핸드폰을 갖고 북한에 귀국하는 것은 유

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은 평창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제품 홍보를 겸해 최신 기종인 갤럭시 노트 8을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IOC를 통해 선수들에게 전달되며 약 400개가 배포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말 채택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조달 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제품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신문은 통일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 내에도 북한 선수들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IOC는 원래 북한 선수단에게 핸드폰을 제공하는 것을 보류했으나 한국을 떠날때 반환하는 조건으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